



# 실존의 순간, 인류문명의 국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구 행성의 위기와 함께 인류는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공동행동, 아니면 집단자살(Collective action or collective suicide)” 지난달 독일 피터스버그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전한 인류의 극단적 선택지입니다. 지난 만년 지구기후의 안전핀으로 작동했던 극지방 기후체계의 혼돈, 40~50도를 오르내리는 북반구 곳곳의 이례적인 폭염과 가뭄, 전 세계 드넓은 산야에 퍼져나간 거친 불길과 세계 도처의 폭우.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 더는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200여 년, 현대사회, 인류문명의 눈부신 성장의 뒷안길에 드리운 기아와 빈곤, 전쟁과 폭력, 가공할 핵전쟁의 위협과 함께 인류는 지금 팬데믹 위기, 지구적 재앙의 실존적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와 경희사이버대학교의 미래문명원, 경희의료원의 의과학문명원이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이어온 경희학원과 함께 미래 시민의 실존적 관심을 요청합니다. 현대 산업사회가 써 내려온 인간의 역사를 인류와 지구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상상하고, 미래의 더 나은 가치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자 합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생명, 인간과 지구의 평화를 함께 찾아 나서며 미래를 위한 도전적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 여정에서 세계시민과 미래세대가 서로 화합하고 협동하는 대화와 실천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2023학년도 학부 학생모집**

접수기간 : 2022.12.1(목) ~ 2023.1.10(화) 입학상담 : 02)959-0000 / go.khcu.ac.kr

**2023학년도 대학원 학생모집**

접수기간 : 2022.11.14(월) ~ 12.09(금) 입학상담 : 02)3299-8808 / grad.khcu.ac.kr